

자산 PF 다변화로 저금리 극복... 'IFRS17' 재검토도

(포트폴리오)

(보험사 회계기준)

위기의 보험사 돌파구를 찾아라

〈下〉日 답습하지 않으려면

IFRS17 도입에 자본확충 부담
1.50%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삼성생명, 英 부동산펀드 투자
미래에셋, 美 SOC에 투자 등
해외펀드 통해 수익률 제고나서



KT는 지난달 삼성화재와 실손의료보험 즉시 청구 사업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 저금리에 잇달아 파산했던 일본 보험사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보험 산업은 1997년 4월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잇달아 파산했다. 1999년 6월 도호생명, 2000년 5월 다이이치화재, 다이하쿠생명이 문을 닫았고 2000년 8월 타이쇼생명, 2000년 10월 치요타생명, 코에이생명, 2001년 3월 도요생명 등도 파산 절차를 밟았다.

일본 보험사들이 줄도산 위기를 겪은 이유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역마진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일본 보험업계는 1980년대 경기호황과 함께 판매경쟁이 심화됐다. 고금리 저축성 상품 판매를 확대했고 높은 예정이율을 제공하는 상품도 팔았다.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 운용 수익률은 하락했고 역마진 문제도 발생했다. 일본 생보사의 역마진 규모

〈종목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7		2018		2019(F) ¹⁾		기존전망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보장성	417,592	3.6	427,858	2.5	435,913	1.9	1.6
	저축성	565,430	-8.9	504,233	-10.8	450,274	-10.7	-10.6
	퇴직연금	149,064	-10.9	168,725	13.2	177,101	5	3.1
	기타	7,649	0.4	7,616	-0.4	7,624	0.1	-0.8
합계	1,139,735	-4.9	1,108,431	-2.7	1,070,913	-3.4	-3.8	
손해보험	장기손보	490,880	2.8	505,736	3	519,177	2.7	1.9
	개인연금	37,007	-4.5	35,163	-5	33,269	-5.4	-5
	퇴직연금	97,757	23.1	107,777	10.2	112,470	4.4	7.5
	자동차	168,573	2.8	167,202	-0.8	169,739	1.5	0.5
	일반손보	89,117	4.8	94,769	6.3	99,388	4.9	8.4
합계	883,334	4.5	910,647	3.1	934,044	2.6	2.7	
전체	2,023,069	-1	2,019,078	-0.2	2,004,957	-0.7	-0.8	

주: 1)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는 1999년 약 1조6000억엔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일본 보험산업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한국 보험산업을 떠올리게 한다. 기준금리는 1.50%로 내려앉았고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사실상 국내 보험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0조4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폭도 전년 0.2%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입보험료는 2017년 202조3069억원에서 지난해 201조9078억원으로 내림세다.

◆ 포트폴리오 다변화, 공동재보험 등 대응책 필요

현재로서는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사들이 낮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일부 보험사는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영국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2000억원 투자에 나섰고 미래에셋생명도 지난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다.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대주주 해외관계사가 운용하는 펀드 투자를 통해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외국환, 부동산, 파생 등 해외투자 비중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해외투자 30% 비중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에서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주문했다. 인수금융, 인프라금융,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 따라 보험사, 특히 생보사는 막대한 자산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외투자, 환 헤지 비용 부담 등에 가로막혀 있다.

급증하고 있는 손해율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두 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초 인상 가능성 높다. 실손보험료는 당국과 논의를 통해 보험료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판고금리 계약을 재보험으로 이전해 부채 적립 부담을 줄이는 '공동재보험'도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기존 재보험이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것과 달리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으로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매년 지출하는 예금보험료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예금보험료 납입분만큼 요구자본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겪고 있는 독일처럼 고위험 보험계약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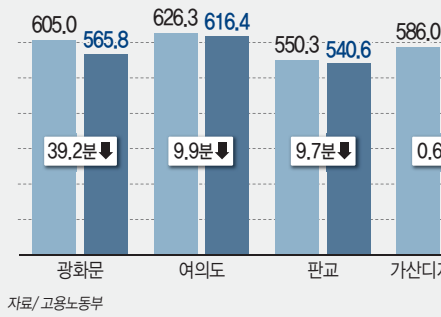
직장인 근무시간 13분 줄고 여가비 18% 늘었다

주 52시간제 이후 직장인 노동시간

광화문지역 39분 가장 큰폭 감소
연령별로 40대 16분, 30대 14분 ↓

지역별 직장인 근로시간 변화

■ 2018년 3~5월 ■ 2018년 3~5월 단위: 분(하루 평균 체류시간)



자료/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자기 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은 평균 18.3%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케이티(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해 직장인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직장인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및 여가 활동 업종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직장인 근무 시간은 4개 지역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주 52시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 광화문의 근무시간이 39.2분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금융 업종 대기업이 다수 분포한 여의도와 정보 기술 업종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판교의 경우에 각각 9.9분과 9.7분 감소했다. 다만 주 52시

간제가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10분 이상 감소한 가운데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던 40대가 15.8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30대는 14.1분, 20대는 11.8분, 근무시간이 가장 짧았던 50대가 10.2분으로 가장 적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30대 직장인은 4개 지역 모두,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과 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도 변화가 있었다. 4개

지역 모두 퇴근 시간이 당겨지는 경향을 보였고, 출근 시간은 업종 특성, 주 52시간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은 늦어지고 퇴근 시간은 빨라지는 유형을 보였다. 광화문은 '9시 출근 6시 퇴근' 유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의도는 금융업계 특성상 9시 이전 출근자가 대부분 8시 이전 조기 출근은 감소하고 8시~8시59분 사이 출근은 증가했으며 오후 5시대 퇴근 비율이 3.8%p 크게 증가했다.

반면, 판교와 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모두 당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

는 모양새였다.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의 이용액도 변화했다. 2017년 8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시 비씨카드 이용액과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후인 2018년 8월부터 5월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의 이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실 인근의 유흥, 저녁급식 이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직장인 밀집 지역인 광화문·여의도·판교·가산디지털단지의 업종별 이용액의 변화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스포츠 레저, 학원, 여행등 업종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포츠 레저 업종, 예컨대 ▲헬스클럽 ▲테니스 ▲수영장 ▲볼링장 등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무실 인근의 유흥업종 소비는 하락 추세였으며 기업에서 시행하는 저녁급식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많은 가산디지털단지는 아직 주 52시간제의 영향이 적어 기업의 위탁급식 이용액 감소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경 기자 son89@

>> 1면 '신용, 등급-점수제...'서 계속

"점수분포 상이해져 혼란 야기 할 수도"

◆신용점수 모호해 설명력 약화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객의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고, 신용평가사별로 점수 산정의 기준이 달라 고객의 신용점수 분포가 상이해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를 통해 등급 간 경계에 있는 고객의 심사를 재검토할 수 있는 유인은 생겼지만 여전히 등급 미달로 거절되는 사례는 점수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고객 상담 시 해당 점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뜻하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CB나 NCB 등 신용평가사 별로 매겨지는 신용점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점수 분포가 상이해져 오히려 고객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심사 시 신용점수 이외에도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용점수제 전환의 실효성 자체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사로 하여금 내부 신용평가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을 운영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